

■ 국가대항전 데이비스컵 테니스



지난 21일 네덜란드 아펠도른 옴니스포츠허에서 열린 데이비스컵대회 한국과 네덜란드와의 경기에서 4번째 단식에 출전한 전용선이 티모 데 비커에게 마지막 세트를 내주자 김남훈 대표팀 감독이 눈을 감으며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월드그룹 탈락
세대교체 빨라질 듯

국가대항전인 데이비스컵 테니스대회에서 1년만에 월드그룹에서 몰라나게 된 한국 남자대표팀에 세대교체의 바람이 일 전망이다. 지난 21일 네덜란드 아펠도른에서 열린 월드그룹 플레이오프(4단식) 네덜란드와 원정 경기에서 2승3패로 저 2009년에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1그룹으로 떨어진 대표팀은 에이스 이형택(32·삼성증권)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번 네덜란드 전에서도 단식에서 혼자 2승을 따낸 이형택이 빠지면 대표팀의 전력 약화는 불을 보듯 뻤다. 사실 상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급 대회에서 뛸 수 있는 유일한 선수인 이형택의 공백을 메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1995년부터 데이비스컵 활약하며 혼자 단식에서만 39승을 거두는 등 총 49승20패를 기록하며 대표팀의 기동 노릇을 해낸 이형택의 빈 자리는 너무나 크

이형택, 대표팀 은퇴 시사
차세대 에이스 조기 육성
전력 공백 최대한 줄여야

다. 이번 네덜란드와 경기에서도 이형택 외에 전용선(246위), 안재성(371위·한솔), 임규태(485위·삼성증권)가 동행했지만 이형택을 대신할 기량은 보여주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대표팀은 이형택의 대표팀 은퇴가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1그룹 탈락과 겹치면서 세대교체의 기회로 삼을 태세다. 한편 한국 테니스가 이제는 지역 예선 통과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지난 21일 월드그룹 플레이오프 네덜란드와 경기에서 2-3으로 진 대표팀은 2009년에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1그룹

에서 뛰게 됐다. 아시아-오세아니아 1그룹은 8개 나라로 구성되며 토너먼트 형식으로 2개국이 9월에 열리는 월드그룹 플레이오프에 나가게 된다. 한국은 우선 네덜란드전에서 혼자 2승을 거둔 에이스 이형택이 대표팀 은퇴 의사를 밝힌데다 다른 나라들의 전력이 크게 좋아져 월드그룹 플레이오프 재진출을 장담하기 힘든 형편이다. 먼저 이번 월드그룹 플레이오프에서 패해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역 그룹으로 떨어진 호주와 인도가 만만치 않고 일본, 대만 등의 전력도 탄탄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US오픈 16강에 진출하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일본이나 아시아 톱랭커인 루옌순(70위)을 보유하고 있는 대만도 이형택이 빠진다면 전력의 무게가 반대쪽으로 기울어 가는 것이 사실이다. /연합뉴스

스페인·아르헨티나 결승 진출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남자테니스 국가대항전인 데이비스컵대회 결승에 진출했다. 세계 랭킹 1위 라파엘 나달이 나선 스페인은 22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4단식(복식)으로 열린 미국과 준결

승에서 4-1로 이겼다. 둘째 날 복식까지 2-1로 앞서 있던 스페인은 제3단식에서 나달이 앤디 로딕(8위)을 3-0으로 완파하며 지난 해 월드그룹 8강에서 미국에 1-4로 진 아픔을 고스란히 되갚았다. 아르헨티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러시아와 홈 경기에서 3-2로 승리, 2006년에 이어 2년만에 결승에 다시 올랐다. 아르헨티나는 2-2로 맞선 마지막 단식에서 후안 마틴 델 포트로(13위)가 이고르 안드레예프(19위)를 3-0(6-4 6-2 6-1)으로 몰리치며 결승행 티켓을 품에 안았다. 아르헨티나는 결승에 두 차례 올랐지만 1981년 미국, 2006년 러시아에 모두 졌다.

세계新 두 여걸

장미란(역도) - 이신바예바(장대높이뛰기)

서울서 만났다

세계를 번쩍 든 '헤라클레스'와 하늘로 높이 솟구친 '미녀새' 두 여걸이 서울 강남에서 만났다. 베이징올림픽 여자 역도 최중량급(+75kg급)에서 세계신기록을 다섯 차례나 세우고 금메달을 목에 건 장미란(25·고양시청)과 여자 장대높이뛰기에서 5m5의 세계신기록으로 올림픽 2회 연속 우승을 이룬 '지존' 엘레나 이신바예바(26·러시아)가 22일 두 손을 맞잡았다. 체육복표사업자 스포츠토토가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밀레니엄 광장에서 마련한 '육상 꿈나무를 위한 서포터 프로모션' 행사장에서도 이신바예바는 25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08 대구국제육상선수권대회 참석차 전날 입국했다. 두 선수는 가볍게 첫 인사를 나눈 뒤 단상에 올라 팬들에게 정식으로 인사했다. 장미란은 올림픽 당시 소감을 묻는 질문에 "1차 시기 때 다리가 아팠지만 자신감을 갖고 연습한 대로 편안하게 경기한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답했다. 베이징올림픽에서 세 번째 도전 만에 극적으로 5m5를 넘고 단상의 주인공이 된 이신바예바는 "약속을 할 수는 없지만 25일 대구 육상대회에서도 세계신기록을 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 역도스타 장미란(왼쪽)과 여자 장대높이뛰기의 러시아 엘레나 이신바예바가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팬들과의 만남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신바예바는 행사장에서 남자친구와 공개 데이트를 즐겼다. 이신바예바의 사랑을 독차지한 이는 트레이닝 코치인 아티올 토네츠키(21)씨.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이신바예바의 트레이닝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만 알려져 있을 뿐 베일에 싸인 인물이다. 토네츠키는 이신바예바와 같이 움직이며 지구거리에서 그를 보좌했다. /연합뉴스



박태환 전국체전 '몸풀기' 한국 수영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마린보이' 박태환이 전국체전에 대비한 훈련을 시 작, 22일 오후 태릉선수촌 수영장에서 가볍게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탁구협 '젊은 피' 수혈

'제2의 도약'을 노리는 대한탁구협회가 스타 플레이어 출신의 젊은 지도자들을 재 집행부에 전진 배치해 변화를 꾀한다. 탁구협회는 22일 제20대 수장으로 취임한 조양호 회장이 직접 짰 새 사무이사단 명단을 발표했다. 새 임원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왕년 스타들의 중용. 1988년 서울올림픽 남자단식 금메달리스트인 유남규(40)와 여자복식 챔피언 현정화(39) 전 남녀 대표팀 코치가 기

술이사와 흥보이사로 각각 선임됐다. 유남규와 현정화는 2005년부터 남녀 대표팀 감독을 맡아오다 천영석 전 회장의 독선적인 협회 운영에 불만을 품고 지난해 12월 사령탑에서 동반 사퇴했다. 6월 대표팀 코치로 복귀해 베이징올림픽에서 남녀 단체전 동메달을 지휘했다. 또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남자단식에서 금메달을 땀던 김택수(38) 대우증권 총감독이 경기이사로 집행부에 합류했고 1992년

경기이사-유남규
흥보이사-현정화

바르셀로나올림픽 남자복식 동메달리스트인 강희찬(39) 대한항공 감독은 기획이사를 맡았다. 이와 함께 최영일(43) 삼성생명 여자팀 감독은 흥보이사로 활동한다. 이들 젊은 이사들은 한진그룹을 이끌고 있는 조양호 회장의 든든한 지휘 아래 한국 탁구 발전의 선봉장으로 나선다. 조양호 회장은 앞서 아낌 없는 재정 지원으로 한국 탁구가 세계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Advertisement for 'Small Business Big Support' (작은만남 큰기쁨)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The ad is organized into a grid of boxes, each containing a business name, address, and phone number. The businesses include a variety of services such as education, fitness, food, and retail.